

미국,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하나의 출원서로 원하는 가입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상표의 국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미국이 지난달 2일자로 가입하였다.

미국의 가입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2003년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일본, 중국 등 59개국이며, 미국에서의 마드리드 의정서 발효는 2003년 11월 2일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2일부터 미국을 지정하여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브로드컴과 인텔, 특허분쟁 합의

세계 최대의 케이블 모뎀 칩메이커인 브로드컴은 인텔에 6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3년에 걸친 특허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지난달 9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칩 제조업체인 인텔과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문제가 된 양사의 기술에 대해 서로 인정하는 공동 라이선스를 계약했다. 이로써 미 연방 법원과 세계 무역 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분쟁은 모두 종식됐다.

인텔은 지난 2000년 8월 브로드컴이 비디오 캠프레션과 직접 메모리 접속 등과 관련된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었고 브로드컴은 지난 2001년 11월 인텔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지난 2001년 12월 텔라웨이 법원은 인텔이 브로드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미국 지방판사 수로빈슨이 지난 2월 텔라웨이 법원의 판결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다시 공방이 시작됐다. 한편 공동 라이선스는 2008년 8월 7일까지 유효하며 별도의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 법원, MS에 5억 달러 배상금 판결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원으로부터 5억2천1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올라스(Eolas) 테크놀로지와 캘리포니아대학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2천1백만 달러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지난달 12일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플러그인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올라스 및 캘리포니아 대학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으로 이 기술은 10여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캘리포니아대학이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94년 이올라스측에게 사용권을 줬다. 이번 소송은 1999년 이올라스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올라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웹브라우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판결에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허침해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제특허 출원 독일 앞질렀다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일본이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달 13일 보도했다.

일본은 1996년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른 후 미국과 독일의 두꺼운 벽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독일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WIPO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상반기 중 8천5백여 건으로, 독일(7천5백여 건)보다 1천여 건 많았다.

미국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해 확고한 선두를 지켰으며 지난해 2위였던 독일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비)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특허 출원에서 일본에 역전 당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